

• 1988년 4월 1일 발행
 • 발행인 / 이호재
 •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 1(2)0 - (0)11(3)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 313-1060
 • 값 / 500원

함께가르여성

1988

4

통권 제8호



우리나라 여성노동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시간 일하고 가장 형편없는 시설, 가장 형편없는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새로 알려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들이 누누이 강조되고도 십수년을 여성노동자들은 한치의 개선없이 그대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런 방치된 상태에서 일어난 3월 25일의 그린힐 화재는 22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다. ... 이제는 정말,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가 나와야 할 때다. (사진·한상균)

목차

- 2-3 소식 / 민우회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열대식 / 제4회 전국여성대회 열려 / 논노상사 여직원과 여성단체 조원 "무장피임활동" 요구하며 당당대립할 피케팅·노조활동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된 분신 택시기사 김경수씨 정연식
 4 이렇게 생각한다 / 동방적으로 뛰는 공천지, 할말 잃은 국민 여성만평
 5 만남 / 4월 17·18일 '꽃다운 아내 청혼' 공연 것은 여성주간 '미일'
 6-7 이 사건을 보는 눈 / 22명 목숨 빼앗은 그린힐 화재 조사 "공장가옥사는 치오법권지대였다"
 8-9 여성들의 현장 / 결혼희곡을 왜 애까지 쓴다?
 10-11 기획연재 / 교육Ⅱ / 과잉육육·과대학교 현장을 가다

- 12-13-14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 종근보고서: 음탕할 틈 없었던 고철장구 한달 현행법문기: 폭이 쉬어 이제 말뚝하는 우원장(목선무역) 수기: 우리 분노해오를 성대기 누군지 언더(몽정선임) 생활속의 실천
 15 여성민주당당실 / 강원기대 노동자와 그 가족 00기
 16-17 생활칼럼 / 물가걱정 제대로 합시다
 18 독자독후감 / 이 늦은 교실에서 배울 바 날말뚝추기
 19 제시관 I / 제4기 직장여성교실·남녀고용평등법 공청회·여성노동자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긴급공청회·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종근보고서(재) 미일 공연 '꽃다운 아내 청혼'
 20 제시관 II / 5월 5일 '무려 이런의 큰잔치'

이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발대식 현장 여성노동자의 사례발표도



운동선언문에서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3월 9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은 민우회 회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의 각 단체 회원들, 노동조합위원장들, 민주시민 등 60여명이 참석, 회의실을 가득 메운 채 열렸는데, 폭력추방운동의 취지 및 내용, 운동일정발표와 구사대폭력 사례발표, 성명서발표, 결의문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본회 최영희 부회장은 취지설명을 통해 최근 행해지고 있는 구사대폭력을 분석하고 이것이 노동운동에 끼치는 영향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덧붙여 ‘이리 귀금속공단’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자 탄압을 위한 교묘한 노무관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사례발표 순서에는 부천 풍정산업 노동조합위원장인 오미령씨가 나와 작년 11월부터 4개월동안 당한 구사대폭력과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폭로했다. 자신들이 당해온 고충을 얘기해 가던 오씨는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버텨내서 이런 자리에까지 나오고...” 하면서 끝내 말문을 잊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려 같이 운동료가 대신 이야기하기도 했다.

‘현 구사대폭력에 대한 우리의 입장’으로 발표된 성명서는 ‘정부는 구사대폭력방지에 성실히 임하라’ ‘구사대폭력 사주하는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결의문이 낭독되어 모



든 참석자들이 함께 외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의 취지를 광범위하게 알린다.
- 직장내 폭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취재와 선전에 최선을 다한다.
- 전 회원이 단결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끝까지 싸운다.

발대식이 끝난 후 민우회 회원 20여명은 오후 4시 명동성당 앞에서 시민들에게 성명서와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안내전단을 배포했다.

제4회 한국여성대회 8백여명 참여속에 열려

지난 3월 8일 오후 6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한국여성단

체인합(회장 이우정) 주최의 제4회 한국여성대회가 8백여명의 시민·직장인·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민족자주화와 여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여성대회는 대회의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길놀이와 노래마당, 이우정 회장의 대회사, 천장의 소리, 공해문제 연극과 수입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담은 연극 공연, 백스테크 노동조합에 대한 올해의 여성상 수상, 88년 여성운동 선언문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88년 여성운동 선언문 낭독에서는 올해 여성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었는데 그 내용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는 경제적 예측이 필연적으로 정치적·군사적 예측을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민족자주화에 우리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음을 직시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운동의 방향과 과제 또한 민주자주화 운동에 두어져야 함을 명백히 한다. 우리 여성들은 공장과 농촌, 그리고 판자촌에서 생존권 쟁취를 위해 앞장섰던 단결된 힘으로, 그리고 지난해 최루탄이 난사하는 거리에서 용감히 앞섰던 그 용기로 민족자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전라북도민주여성회 2월 29일 창립

지방에서 또 하나의 여성단체가 발족되었다.

‘전라북도 민주여성회’란 새 단체가 지난 2월 29일 창립총회를 갖고 그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창립총회에서 전라북도 민주여성회 회원들은 전라북도 지역여성의 권익을 위해 실현하고 여성들의 조직적 연대를 통하여 여성의 인간화와 사회의 민주화, 그리고 민족 자주 통일을 위해 일할 것을 결의하였다.

논노상사조합원과 여성단체 회원 '위장폐업철회' 명동매장앞 피케팅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3월 26일 논노상사 조합원들과 함께 위장폐업철회 및 생존권 보장요구를 위한 피케팅을 벌였다.

논노상사조합원 12명을 비롯한 민우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민주불교운동연합 여성부, 여학생대표자협의회, 여성정의회 회원 등 40여명은 논노패션 명동매장 앞에 모여 "여성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노동3권 완전 보장하라" "논노는 해고철회하고 즉각 복직시켜라"를 소리높여 외쳤다.

토요일 오후인 이날, 많은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조합원들은 "우리의 소원은 복직"을 노래하며 호소문을 나누어 주며 동참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날의 피케팅은 무려 1시간이 넘게 계속되었는데, 조합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의 구호를 방해하기 위해 매장이 출입문을 광범위하게 잠근 채 조합원들은 즉석에서 착안하여 구호를 적은 옷을 입은 채 노래소리에 맞춰 패션을 벌여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내기도 했다.

논노상사는 업창동에 있는 논노패션의 계열회사로서, 논노상사 여성노동자들은 지난해 4월 18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었다. 하루 평균 10~12시간의 노동, 시다초임 2천8백80원의 저임금을 받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노조가 결성되자 회사측은 본공장 건물이 임대건물이라는 이유로 공장이전을 계획하였고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사

무실을 부수는 등 현장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한편, 조합원들을 수차례 부시어 동시킴이나 관리자를 앞세워 강제사직서를 받아냈다.

조합결성 당시 3백60명이던 인원이 불과 4개월 사이에 1백60명으로 줄어들었다. 남은 조합원들은 입지조건이 불합리한 경기도 용인으로 공장 이전하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근교로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해 10월 일방적으로 공장이전을 통고하더니 "어떤 경우라도 공장을 정상가동시킬 것"이라던 약속을 깨고 급기야는 2월 1일자로 폐업을 단행해버렸으며, 이에 논노상사 조합원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매장앞에서의 항의피케팅을 시도하게 된 것이다.

3월 26일에 이어 27일에도 피케팅을 벌이던 조합원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로 차에 태워져 난지도에 내팽개쳐졌다. 그러나 이들은 끈질기게도 그날 오후 6시



소식

명동매장에 다시 모여 회사측에 항의의 피케팅을 계속했다.

회사측은 마침내 조합원들의 굴하지않는 복직요구와 시민들의 항의에 밀려 4월 1일 1차 협상을 요구하였고,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노조활동 이유로 억울하게 해고된 분신 택시기사 김장수씨 장례식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길병원 영안실 앞에서는 고 김장수씨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다.

김장수씨는 87년 6월 15일 경기도통에서 노동조합을 결성, 조합장에 선출되었었는데 이후 회사측에 매수된 부조합장 김만수씨로부터 계속적인 방해를 받아 왔으며 12월 23일 술과석에서의 사소한 싸움으로 입은 상처를 내세워 김만수씨는 계속 협박을 가해왔다.

이에 김장수씨는 12월 31일 조합장을 사퇴했지만 조합장 직무대리가 된 김만수씨 등 새 집행부는 구사대로 변해 민주노조원들을 탄압했고 김장수씨등 핵심 조합원 6명을 제명하였으며 올해 2월 24일에는 김장수씨에게 부당한 해고 예고통지까지 하게 되었다.

김장수씨는 이에 항의하여 부당한 해고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으며 3월 1일에는 분신까지 감행, 9일 인천 길병원에서 사망하고 만 것이다.

그러나 장례식 역시 순탄치 못했다. 이날 장례식은 발인제가 끝난 후 노제를 거쳐 경기도통회사로 가서 제차 발인을 하고 김포 고려요원에 안장된 계획이었지만 노제를 거행하는 도중 병원앞 3백미터 전방 사거리에서 5백여명의 전무경찰과 3백여명의 백골단이 동원되어 영구차 뒤를 따르던 택시노조원들과 조객들을 무차별 구타 연행하고 택시를 파손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택시의 문을 잠그고 있던 조객을 창을 깨고 머리를 잡아 끌어내어 얼굴 및 목에 깊은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노제는 유가족들의 오열과 뺨자국, 참가자들의 통분 속에 약 5시간 가량 중단되었다가 연행자 석방, 부상자 치료보상, 차량 손해보상, 관제당국의 공개사과와 평화적 장례식을 약속받은 뒤 오후 5시부터 다시 재개되었다. ■

이렇게 생각한다

돈방석위로 뛰는 공천자, 할말 잃은 국민

요즘 국회의원 공천을 둘러싼 정치판을 들여다 보고 있노라면 이전 '나눠먹기식' '공천주식회사' 당, 이 정도의 민정거림은 어렵도 없을만치 혼탁 그 자체다.

'그래도 정치는 중요한데 정치를 제대로 알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신문·TV·잡지를 열심히 뒤적이던 우리 '성실한' 국민들도 이런 그만 손을 때가 됐을 정도다. 누구를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모두들 부끄럽없이 내뱉고 있다.

3월 한달동안의 정치기사는 온통 공천을 둘러싼 앞·뒷얘기들이었는데 - 3월초까지만 해도 선거구제 문제·야당통합 문제들이 전면에 대두되었지만 여기서의 철저한 기대감 무산은 그뒤 공천만능 정치기류를 그대로 방치하게 하는데 일조했다 - 두드러진 점은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드러내주는 게 언론의 자유인가, 할 만큼 개개인과 당의 인맥, 즉 야사(夜史)만이 판을 친다는 사실이다.

누구 누구가 고위층 인맥 때문에 유력하다니 누구 누구는 유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무슨 무슨 파워게임에 희생물이 됐다는니 하는 것들이 주로 돈줄 걱정 없는 여당가의 이야기들이고, '누구를 만나 돈을 쓰면 가장 효험이 빠르냐'를 묻고 다니거나 하루에 한번씩 '눈맞춤'을 하기 위해 공천권자의 주위를 맴돈다는 공천지망생들 이야기가 주로 돈줄과 공천권을 일치시켜온 야당가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급기야 공천자발표가 있던 날은 당사접거 항의농성·며칠 전까지만 해도 깃발 세우며 비난하던 다른 당으로의 이전·비관음독자살까지 잇따르는, 진풍경이라기엔 너무나 슬프고 화까지 나는 오늘의 정치판이다.

이런 모습들을 어이없어하면서도 그러나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땅 '보통사람'들은 이제야 '아하, /' 하고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려면 적어도 기본으로 5천만원이 든다는데 - 대개는 그 몇십백씩을 켜지만 - 그 많은 돈을 '투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토록 피터지는 경쟁을 하는 걸 보면 그 국회의원 자리란 것이 확실히 그 이상의 투자가치를 보장해 준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이쯤에 미치면, 지난 3월초

왜 헌직국회의원들이 소선거구제를 두고 그토록 필적필적 뛰었는지, 왜 지상명제가 되다시피한 야당통합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스스로 명백해진다.

그러나 이 정도의 깨달음으로 만족하기엔 우리 국민들은 하고싶은 말이 더 있다. 국민들이 두손 묶이고 입 막혀있던 지난 수십년간 언제부턴가 정치가 이토록 '돈 놓고 돈 먹기' 판으로 변해왔건만 왜 그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단 말인가. 언론들도 한결같이 정치권의 혼탁을 함께 말하지만,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정치제도 - 안가(安家)에서 낙점을 찍고, 자기돈을 댈 수 있다는 보장이 서야 출마시키는 등등 - 하에선 그 어떤 청렴·대의명분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정치권 혼탁의 이유와 처방은 간단하다. 정치제도의 비민주성, 즉 모든 의사

결정의 중심에 국민이 서있지 않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처방은 모든 제도의 중심을 국민의 입장에서 세워갈 때에만 풀릴 수 있다 - 공천자가 한번 바뀔 때마다 매번 새로 창당되곤 하는 지구당을 보면 현재의 정당들이 얼마나 지역주민들속에 뿌리를 못내리고 있는가, 얼마나 국회의원들 중심의 헛헛대기 당인가를 잘 알 수 있다 -.

4월 26일이 국회의원 총선일이다.

지금 이 정치판에 대고 민주·대의명분·청렴만을 외치대는 일이 무력한 만큼이나 똑같이, 기존 정당들의 손아귀에 놓여진 이번 총선에서 당장 우리 국민들이 참주인이 되어 정치세력으로 진출하기는 요원하다.

그러나 자칫 현재의 정치권이 국민을 정치적 무관심의 늪으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더 크게 경계한다. 정치적 무관심은 어떤 의미에선 대통령선거이후 집권당의 지속적인 정책의 결과이며, 이는 독재를 부를 뿐 아니라 궁극적 해결의 열쇠를 우리손으로부터 영원히 앗아간다.

우리는 이번 총선을 치르며 배울 것을 분명히 배워야한다. 진짜 정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두눈 부릅뜨고 확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참 정치기반을 만들어내는 일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



만남/여성극단 '미알'

아현시장안에 자리한 '중앙민속' 4층 꼭대기, '극단'이라는 보통명사 앞에 '여성' 자가 더 붙은 여성극단 '미알' 단원들이 일요일 밤 늦은 시각까지 연습이 한창이다.

"우리 '미알'은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된 '민족극 한마당'에 참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뿐이고 사실은 그동안 문화운동을 해왔던 여성들이 여성 문제를 피부로 느낀 바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밖으로 나타낼 어떤 장치에 대한 절실함도 있었기 때문에 '미알'의 창단이 가능했지요"

그동안의 지나간 대본작업과 하루 몇 시간씩의 연습에도 지친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연습자 김정자씨(35)의 이야기이다. 그는 또한 극단의 대표이기도 하다. 극단의 정식 단원은 현재 15명인데, 각 여성단체 -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의 전화 등 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속해있는 여성단체들 - 의 문화부 소속이면 자동적으로 극단원이 될 수 있고 각 대학에서 연극을 하는 학생도 준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다.

'민족극 한마당' 행사는 지난 15년간 이룩해 온 민족극 운동을 넓힌 마당에다 한데 펼쳐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보여 주면서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하는 소리를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마련되었다 한다. 3월 3일부터 약 두달에 걸쳐 전국의 14개 극단이 참가하여 그야말로 한 판을 벌이는데, '미알'은 '꽃다운 이내 청춘'이라는 극으로 4월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처녀출연하게 된 것이다.

"여성극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많은 여성문제중에서 어떤 문제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풀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역시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꽃다운 이내 청춘'은 한마디로 말해 기생관람 즉 매춘 문제를 다룬 것이지만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는 그속에 들어 있는 구조 즉 어쩔 수 없는 현실속에서 무력하게 죽어가는 여성의 모습을 현실감있게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스티스의 죽음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다 폭로된 상태이지만 극적으로 재구성 함으로써 그 죽음의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고 같은 여성으로서 깊은 감동을 느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역사속에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아픔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때라도 그 아픔이 민족의

“여성극단이란 이름에 아께가 무겁습니다”



미알 연습장면

'미알'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여성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 보여줄 작정인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 아픔을 같이 하는 여성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픔으로 동일시되어 주목받거나 동감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여성사이다. 특히 이 점을 생각할 때 여성극단의 설립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게 된다.

"기생파티 장소에서 죽어가는 호스티스에게도 부모가 있고 우정이 깊은 친구가 있고, 또한 같은 처지의 그 호스티스가 단짝 친구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다가 또 하나의 굴레로 다가오는 남성을 살인할 수밖에 없는 비극을 그려냄으로써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일단 성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알'은 사회의 어두운 구석에 묻혀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와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용당하고 짓밟히는 여성들의 삶을 주제로 하는 연극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달려가 보여줄 작정인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 아픔을 같이 하는 여성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남편들도 부인의 '연기'를 도와

그러나 새롭고 좋은 뜻을 살리려는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88년 새해초부터 작업에 들어간 '꽃다운 이내 청춘'은 3개월여의 난산 끝에야 대본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 또한 극

중에 반대성 일본인 등의 남자배우가 필요한데 단원이 모두 여성인만큼 배우 구하는 일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이번 민족극 한마당은 행사 자체가 지금까지 마당극을 본 적이 없는 대중까지도 관객으로 삼기 때문에 한 특정한 인물을 극대화해서 현실감과 동떨어져서도 안되고 또한 생경한 구호나 너무 강한 메시지를 폭력적으로 전하는 것도 자제해야만 했다. 여성극단 '미알'이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단된 만큼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명제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그야말로 연습자와 배우들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올린 무대에서 관객과 더불어 검증받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야기가 이름에 이르자 단원들은 물론 단원의 배우자들도 이 연극의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어 부인 대신 아이들보는 일 등은 서슴지 않는다고 한 단원이 귀띔을 해준다.

어쨌든 이 땅의 진정한 여성문제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보여줄 '미알'은 이렇게 단원들의 열성과 주위의 성원속에 기량을 닦아가고 있다. 4월 17일 2시, 4시30분, 7시30분 그리고 4월 18일 4시30분, 7시30분의 5회 공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과 함께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던 것이다.

어린 딸을 고생만 시키다가 객지에 돈 벌러 내보낸 부모, 그러던 어느날 줄지에 '불에 타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이 무슨 경황으로 협상을 벌일 수 있을까마는 허나 그나마도 제대로 될 리 없었다.

3월의 마지막날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는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종로5가 지하철역에서부터 검은테두린 사진을 가슴에 끼안은 50여명의 유가족들이 '내 딸을 살려내라'라는 현수막을 들고 행진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회관 민주생태국민운동본부 사무실안에 '그린힐 노동참사 합동분향소'를 마련했다. 안양시청측의 태도에

다'는 것뿐이었다.

근로기준법에는 엄연히 기숙사 시설이 나오고 있지만 그 역시 자세히 보면 권장사항일 뿐이어서 '기숙사'는 말하자면 몇장수 마음대로인 일종의 최외법권지대였던 것이다. 기업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저렴한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서비스'하는 셈이니 무슨 간섭이 필요하냐는 식이라고나 할까.

따라서 이 '무법지대'에 그 어떤 '도덕'이란 자를 갖다대기 위해선 우선, 왜 이 악조건인데도 여성노동자는 기숙사에 살 수밖에 없는가 하는 보다 큰 문제부터 따질 수 밖에 없게 된다.

1981년 노동부 통계를 보면 5인 이상의 사업체 중 여성 취업자가 36.6%이



하얗게 그칠린 기숙사내부

자는 가족처럼'에 걸맞게 그나마 있는 기숙사도 시설이 형편없다. 마포구 공덕시장내의 K기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봉제공회사이다. 이 회사 기숙사생은 전 종업원의 50%인 1백여명인데 지하실에 10여개의 방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다. 환기시설은 전혀 없고 화장실도 1층 작업장안에 있으며 식사의 질도 너무 낮아 오죽하면 종업원들이 근처 공덕시장에 가서 따로 돈을 내고 사먹을 정도다. 또 청계시장의 한 작은 영세봉제공장에서는 공장 위 다락방이 기숙사였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잠에 쫓겨 떨어진 여성노동자들을 공장장이 수행한 사건까지 있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회사측 역시 노동자들이 기숙사에 입주하는 것을 원한다는 점이다. 암암리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거의 밀폐된 공간속에서 먹고 자고 일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번 그린힐 사건에서도 세군대 출입구가 다 잠겨있었다는 사실 또한 이를 증명하고 있다. 회사측은 원단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기숙사생들이 반(半) 감금상태에 놓여진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때문이다.

참사 후 각 신문들은 다 끔찍한 인재라고 한번씩들 떠들었지만- 그것도 주로 소방시설 미비문제-그 한번뿐 굳이여 보도된 그린힐 관계 기사는 오직 유가족들의 보상문제뿐이어서 이 문제를 취급하는 언론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린힐 참사를 취재하며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전반에 대한 철폐가 가해지지 않는 한 이들 22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두번 죽는 셈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

그린힐로 대표되는 영세제조업체들이 진짜 '푸른 언덕' 같은 근로조건을 갖추는 없을 것인가?



임의로 옮겨놓은 수난을 입은 피해자의 죽어 있는 사진이다



가스와 불길로 인해 옮겨졌던 세군대 출입구 앞의 몇몇 안의 몸통을 전경으로 비추는 서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일직사 했다

분개한 가족들이 서울까지 올라온 것이다.

-사망한 최남숙씨의 오빠인 최태석씨
"시청측에서는 유가족들이 대부분 시골사람이라서 농번기에 곧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며 시간 지나기만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협상태도가 너무 불성실합니다"

-유가족 대표 중 한명인 김공열씨
"참사후 시청과 회사측 태도에 의문이 생깁니다. 회사는 생존자를 숨기고 모습을 전혀 안나타내고 시청은 수사진전 상황을 보안상 문제라며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여성」에서는 참사현장을 둘러본 후 노동부에 문의전화를 했다. 세군대 출입구가 다 폭폭 채워져 있어 불이 나면 그대로 죽을 수 밖에 없는 기숙사시설을 제재할 법은 없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노동부에선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처음 노동부장관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산업안전과에 걸라고 했고 또 그곳에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대어섯 군대를 돌다가 부녀소년과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온 대답은 '기숙사는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

고 대부분 24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중졸 이하의 학력이며 생산직에 종사한다고 나와있다. 또 1984년 여성개발원 연구자료는 봉제업 여성노동자의 8시간 기준 평균 임금을 7만 7천 7백60원으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저임금하에서는 대부분 지방이 고향인 여성노동자들에게 자취보다 돈이 덜 드는 기숙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984년 노동부의 '공단지역 근로복지 후생실태조사'를 보면 입주사업체의 40.2%만 기숙사를 갖추고있고 수용인원은 23.1%에 그쳐 수요에 턱없이 모자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흔히 말하는 '공장일은 내 일처럼 근로

여성들의현장/ 결혼퇴직

「함께 가는 여성」에서는 지난 2월호에 '결혼퇴직 진짜로 없애려면'이란 제목으로 이야기마당을 벌였었다. 그후 많은 직장에서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왔으며 보다 총체적인 정보와 실태를 얻었으면 하는 요구들이 생겨나, 이번호에 결혼퇴직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87년 2월 대한투자신탁 주소녀씨 사건 항의집회에모인장

결혼퇴직 철폐 어디까지 왔나?

“결혼퇴직이요? 그야 옛말이지, 여자들이 직업의식만 부릴하다면야 일하는 걸 누가 반대하냐, 혹시 퇴직시켜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본인이 거부하면 그만이지”

아마도 이런 생각은 결혼퇴직 문제를 보는 현재의 일반상식선일 것이다. 사실 여직원의 의지만 있으면 별 마찰없이 다닐 수 있게 된 회사도 있다. 얼마전 고려투자금융에서는 한 여직원이 결혼후에도 계속 다니겠다는 뜻을 밝히자 경영주가 그 여직원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해보라’고 했더니 이를 되면 ‘결혼퇴직’이라는 말은 옛말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직장의 꽃으로 조선하게 있다 평생 직장인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지’라고 생각했던 얼마전까지의 조류- 실제로 1976년에 결혼후 계속 다니겠다는 여행원 노미숙씨에 대해 쏟아진 따가운 눈총, 가까이에는 지난해 대한투자신탁 내에서 주소녀씨에게 가해진 유형·무형의 압력과 따돌림-와 비교해 볼 때 직세지감을 느낄 정도의 변화이다.

이 변화, 이 뒤바뀐은 어떻게 이루어

진 것인가?

이는 바로 직장여성들의 자각과 끈질긴 도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준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들의 노력, 거기에 매스컴을 비롯한 사회여론의 비등이 주요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 4월 1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성차별적 장년, 퇴직 및 해고에 대해서는 유독 법적조항을 둘 정도로 ‘결혼퇴직’ ‘조기정년’은 부당하다는 것이 보편화된 가치관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금지된 결혼퇴직은 과연 이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구시대적 유물인 것인가?

대부분의 회사가 옛날처럼 결혼각서를 받지는 않지만 기혼 여성이 없는 곳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것인가로 고민하는 직장여성들이 많은 게 또 한편의 현실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여성은 기혼여성 1호라는 영예보다 그 시달림의 굴레가 귀찮아 그만두기도 하고, 용기를 내서 방울을 달면 해고니, 축탁이니 하는 맛바람에 당황하기도 한다.

그뿐인가. 대구 영남의료원에서는 교환원으로 근무해오던 장영이씨를 만 28세 퇴직이라는 내규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시킨 적도 있다(87년 12월). 본인은 물론 대구여성회를 중심으로 대구여성단체들이 부당성을 항의하여 복직을 요구했지만 의료원측은 복직불가로 강경히 맞서고 있을 뿐 아니라 장영이씨 해고이후 3명의 교환원을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한다. 씩부터 없애겠다는 속셈이다. 영남의료원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환원이외에도 사환·승강기원은 20세, 간호조무사·약제보조수·의료기사보조수·타자수 등이 모두 28세 정년으로 되어있다. 이 부당한 규정에 마음속으로만 끔공 모든 여직원이 알고 있을 때 장영이씨가 이를 거부하고 나섰지만, 아직 그 해결의 길은 멀어만 보인다.

‘결혼퇴직은 부당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처럼 현실은 밝지않은 것은 왜인가.

개인 의지와 여성단체의 지원이 맞물려

여기에서, 결혼퇴직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내기 위해 그간 진행되어 왔던 결혼퇴직철폐 사례들을 추적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인듯 싶다.

먼저 결혼퇴직 문제가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여행원 결혼 각서제가 발단이 된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4년 11월 BPW(전통적 여성클럽)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은행원사시에 제출되는 정식서류의 하나인 결혼각서가 크게 부각되었다. 75년에는 YWCA연합회, BPW여성지도자들이 한국은행장을 방문하여 결혼각서제지를 촉구하였으며 재무부 당국에 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회여론에 힘입어 76년 조흥은행 이명숙씨와 산업은행 노미숙씨가 특별휴가를 신청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은행측의 사표종용이 필요하였지만 ‘파면시키려면 시켜라, 내 손으로 사표는 못내겠다’고 버틴 두 여행원의 투쟁은 결혼각서의 뱀을 드디어 허물고 말았다.

이 경우, 문제의 실마리는 해당 당사자의 투지와 뜻을 함께 한 지원세력이 호응을 같이 해 나갈 때 풀렸던 것이다. 지난해 해결된 대한투자신탁의 주소녀씨 사건도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86년 결혼했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 이에 불응하자 대전으로 보복인사발령을 받은 주소녀씨는 그 부당성을 항의하고 끝까지 여성단체와 함께 싸움으로써 서울로

호간의 유대관계 회복 ⑧학생의 책임의식 결여 등으로 전인교육에 대한 기대는 이에 접어들어야 할 형편이다.

얼마 전 모국민학교에 취입한 초임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교직에 들어 오기 전에 가졌던 ‘인간주의 교육’의 갖가지 근사한 관념들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어요. 대화식 수업, 토론위주의 수업, 문제 발견식 학습, 모두 초점이 안맞는 공염불이지요. 교실은 공부하는 곳이라기보다 공장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도 소규모 가내공장이 아니라 먼지와 인체에 유해한 백묵가루가 날리는 대공장이죠”

교사들의 어려운 점은 이뿐이 아니다. 수업중에 너무 소란스러워 그중 좀 지나치게 떠든다 싶은 아이가 있어 자신도

다.

과대학교는 하루에 세번씩 교문 일대에 큰 혼잡이 벌어진다. 아침 등교시간과 오전반이 끝나고 오후반이 등교하는 12시경, 그리고 그후 하교시간이다. 활짝 열린 정문과 후문으로 아이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룬다. 어머니회 회원과 교사들이 차도에 나가 교통정리를 하고, 6학년 아이들이 줄을 세워 보행지도를 한다.

82년도 어린이들이 방학을 맞은 기쁨으로 한꺼번에 환호성을 지르며 물려나오다가 참변을 당한 대구 어느 국민학교 계단에서의 사건과 같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어린이들이 언제나 일상불란하게 움직여주기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교사 1인당 적정 학생수가 20명선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요원한 얘기고 과밀학급의 일부 해소책이라도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시간과 잔무를 대폭 줄이고 신중한 판단 하에서의 가정방문을 부활하며, 학급운영 방식에서 그룹별 지도와 학급자치회를 만들어 볼 때 가능성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모르게 “이 돼지같은 녀석아 좀 조용할 수 없니?”라고 한 말에 상심을 해서 학교도 나오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알았다는 아이, 지적을 해서 발표를 시켰더니 머뭇머뭇거리기만 해서 그냥 앉게 하고 시간상 교사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소심한 성격의 그 아이는 두고두고 한을 삼았다는 아이 등.

과대규모 학교인 경우 중·고교는 3개 학년이라 그나마 덜한 편이지만 6개 학년인 국민학교의 경우는 참으로 심각하다. 전문가에 따르면 적정 규모의 학생 수는 학교당 7백50~2천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한 학교당 학생수가 3천~5천명까지의 학교가 3백3개교, 5천~7천명이 되는 학교가 아직도 7개교나 되는데, 운동장이 좁아 운동회도 2부제를 하고, 입학식 졸업식은 강당이 좁아 운동장에서 치르는 형편이

어린이의 발달한 정서와 활동을 포용·확대시켜야 할 교육이 이처럼 과밀학급·과대학교 현상 때문에 어린이들을 ‘질서’ 속에 묶어 규격품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문교부는 86년 발간한 교육세 백서에서 이처럼 심각한 교육현장의 뿌리는 교육 재정난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급격한 교육재정 수요의 증가와 교육재정의 특성인 비건급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해결을 위해 교육세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2년에 신설된 교육세는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해소, 과대규모 학교의 분리, 노후시설 개축, 부족교실 증축, 재래식변소 개량, 책걸상 대체, 부족교지 매입 등 시급한 학교시설 개선과 교원처우에 대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해소책은 기대에

비해 너무 미흡하고, 학교시설과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재원은 학부모, 동창회, 지역인사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게 현실이다.

실례로 평명시 아파트촌 신축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킨 어느 주부는 학부모총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장을 받고 갔다가 줄지에 7천원을 기부금으로 내고 왔다. 40명이 채 안되게 모인 학부모들에게 달임교사가 학급에 비치할 사물함과 녹음기값 25만원 상당을 부탁했기 때문이었다. 올해 3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이 주부는 3월이 되면서 학교에 화분, 빗자루와 대걸레 등을 아이가 요구해와 사보냈으며 육성회비, 어머니회비 납부 등 학교의 재원마련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차제에 시한부 목적적인 교육세가 본래 목적과는 달리 타분야에 상당액이 전용되었다는 어느 일간지 논설은 우리를 분개하게 만든다.

또 이렇게 과밀학급·과대학교가 많은 데도 미발령 교사 또한 적체되고 있는 현상은 문교정책의 실패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수는 52명, 선진국은 교사하고 필리핀의 교사 1인당 학생수 29명보다도 배에 가까운 학생수의 부담을 안고 있다.

교육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모여중의 K교사는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학급의 많은 인원수로 인해 학생들의 환경·마음상태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교사 1인당 적정 학생수가 20명선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요원한 얘기고 과밀학급의 일부 해소책이라도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시간과 잔무를 대폭 줄이고 신중한 판단 하에서의 가정방문을 부활하며, 학급운영 방식에서 그룹별 지도와 학급자치회를 만들어 볼 때 가능성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교사의 파나는 헌신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해소책은 문교행정의 적극성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우리의 과밀교육현실, 이 현실을 타개하고 대실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행정당국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주체가 되는 학교로 변화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문제의 접점을 깨뜨리고 주체적으로 학교교육을 이끌어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중간보고서

민우회는 지난 3월 9일의 발대식을 출발로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직장내 폭력사태를 접수, 현장취재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 사례들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이 활발히 진행중인데, 「함께 가는 여성」에서는 이 운동의 중간보고서, 담당자의 현장방문기, 직접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한 여성노동자의 수기를 한데 모아 실기로 했다. 편집자주



숨돌림 틈 없었던 고발창구 한달

1. 오르본전자

발대식 바로 다음날인 3월 10일 본회는 오르본전자 노조위원장 송은숙씨로부터 구사대폭력 고발을 접수, 11일 오르본전자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14일 진상조사방문단을 만들어 구로구 오르본전자로 갔다. 민우회 회원 네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오르본전자 김일중 상무와 박석무 생산부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구사대에 의한 노조집행부 및 가족들에 대한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구사대 폭력 공개사과' '노조집행부 안전출근보장' '노조집행부 작업장 정상복귀'를 요구했다. 이에 회사측은 '안전출근 및 집행부 작업장복귀'를 수락하게 되었다.

오르본전자는 노동자 8백여명이 일하고 있는 시계 및 전화기 생산업체. 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결과, 노조집행부는 노조가 결성된 2월 1일부터 지속적인 구사대폭력을 당해왔음이 밝혀졌다.

24일과 25일 이틀동안 집행부를 감금,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항의하던 가족과 시민들에게까지 폭행을 서슴지 않았다. 2월 28일에는 조합장 송은숙씨가 노조 사무실에 감금된 채 '오르본노조 집행부 불신입건에 대한 임시총회소집요구서'에 도장찍기를 강요당하면서 남자구사대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3월 3일에는 구사대들이 총회소집취소공고를 붙

이는 이행순, 김금희, 왕민정, 안순옥씨 등을 회사내 수위실 옆방으로 끌고가 전치 10~14일의 상처를 입힌 것이다.

2. 성남 옥산무역

3월 12일 아침 10시경 성남 옥산무역 노동자들이 회사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고발전화를 걸어왔다.

본회는 13일 옥산무역 노조원들의 농성장소를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방문기 참조) 16일에는 옥산노조의 요청으로 옥산무역 앞에서 열린 성남지역 민주노조 주체 '옥산노조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 지지성명과 격

려금을 전달했다.

이후 농성 20일만인 4월 1일 옥산노조원들은 공장이전 철회, 노조활동보장 등 요구조건을 얻어내면서 농성을 풀었다.

3. 부천 풍정산업

3월 23일 본회는 부천 풍정산업 노조위원장 오미령씨와 면담, 구사대폭력 사례를 고발받았다.

부천 도당동에 있는 풍정산업은 자동차 백밀러 생산업체로서 전량을 현대·대우·기아에 납품하고 있다. 풍정노조원들은 87년 11월 11일 노조가 결성되던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구사대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있었는데, 최근 2월 27일에는 구사대 2명이 조합원 장형석, 신정철씨 등을 화장실에 감금 구타했고, 2월 29일에는 박주용 주임을 비롯한 구사대가 노조원들의 목을 조르고 코를 비틀어 이중 임정옥씨는 아침마다 코피를 흘릴 정도다. 3월 22일에도 김영만씨가 구사대에게 오른쪽 어깨를 몹시 맞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말경 구사대 2명이 앞실선언을 해와 풍정의 폭력사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노조가 생기자마자 회사측이 우리 7명을 시켜 현노조를 깨뜨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른 유혹비는 영수증만 주면 회사가 전액 부담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것.

이에 본회는 3월 31일 명동성당에서 풍정노조 명의의 호소문을 신부와 신도들에게 배포했으며 현재 계속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4. 기타 폭력사태들

이외에도 본회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크게 알려진 대원전기 구사대폭력 진상

생활속의 실천

본회가 벌이고 있는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은 본회 회원이나 폭력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만이 열심히 뛰는 운동이 아니다. 어떠한 형태든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 또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민주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이다.

1. 자신이나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직장내 폭력을 주저없이 고발하자(고발전화 313-1060).

2. 직장내폭력추방에 관한 유언록이나 소식지를 주위 친지들과 돌려보며 토론해보자(본회 사무실로 연락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3. 이 운동의 보다 폭넓은 선전과 파급력을 위해 본회는 시민들의 성금을 모으고 있다(온라인: 조흥은행 308-6-192071 홍영주).

을 3월 10일, 12일, 14일에 걸쳐 취재했고 3월 18일에는 영등포 시립병원에 안치된 오범근씨 -대원전기 구사대폭력에 항의 움독자살했다- 빈소를 방문, 조의금을 전달했다.

또 22일 파주여중교 교사에 대한 폭력사태를 취재했으며 23일에는 인천 김병원앞에서 열린 경기교통 김장수씨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29일에는 구사대폭력과 노조원 구속 등에 항의 서울로 올

라온 울산 현대엔진 가족들과 함께 계동 현대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25일 그린힐 화재소식을 접한 본회는 여성노동자를 반(半)갑급시킬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다는 점을 중시하여 이 사건을 또다른 차원의 '직장내 폭력'으로 간주, 현재 취재와 대책활동을 진행중에 있다.

현장방문기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마침 조합원 아주머니
한분이 밥을 해오셨다.
사무실안은 금방 부산스러워
졌다. 밥 한공기에 김치가
전부다. 아침은 라면이나
빵, 점심은 밥, 저녁은
대충 때문다고 한다.



목이 쉬어 아예 말 못하는 위원장

이미숙 (본회 회원)

3월 15일 화요일.

울산 노동자들의 농성상황이 궁금해 회사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는다. '오늘이 공장이전 날이라더니 무슨 일이 있나보다' 하는 생각에 - 회사측은 노조를 없애려는 시도로 지금의 공장을 위장으로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이전해 가려 하고 있었다 - 담당자 네명은 얼른 가방을 챙겨 들었다. 급한 마음에 잠실역에 내려 없는 돈을 털어 택시를 타고 성남시 상대원동 산비탈에 있는 공장으로 뛰었다.

공장벽에는 '민주노조 사수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사장은 분열책동 중지하고 공장이전 철회하라' '사장은 즉각 월급을 지급하라'는 구호가 붙어있고 출입구에는 노동자로 보이는 청년들이 웅성대고 있었다. 모든 게 심상치 않았다. 우리는 좁은 출입구를 지나 1층 사무

실로 들어갔다. 이정란 노조위원장과 노조원 30여명이 사무실에서 농성하고 있었는데 위원장은 목이 쉬어 아예 말을 못했다.

이날 아침 8시부터 기계를 빼가려는 회사측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지난 11일에 폭력을 휘둘렀던 이재득 대리를 고참과 관리자친척으로 만들어진 구사대들이 데리고 들어오려해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울산무역 노조원들과 주변 성남지역 민주노조원들의 도움으로 기계는 빼가지 못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마침 조합원 아주머니 한분이 밥을 해오셨다. 사무실안은 금방 부산스러워졌다. 밥 한공기에 김치가 전부다. 아침은 라면이나 빵, 점심은 밥, 저녁은 대충 때문다고 한다. 가운데 난로가 있고 그 주위에 긴 의자가 놓여 있는 사무실은 30여명이 잠을 자기

엔 너무 좁아 보였다.

"사장이 60일 견딜 것 같아서 우리는 61일 견디서 이길래요"라는 한 노조원의 말에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농성 조합원들의 얼굴이 활기차다. 밖에 서있는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자 성남지역 민주노조원들이라 한다. 울산무역이 여성노동자만 있다고 해서 11일 농성이 시작되던 날부터 정문밖에서 수비대를 만들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밖으로 나가 조의를 하고 이곳에 왔다는 다른 회사의 한 여성노동자를 만났다. 울산노조원과 타 노조원이 한마음으로 단결했으니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자신있어 한다.

울산무역은 원래 고급 니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성남에서 세금을 5번째로 많이 내며 올 1월에는 하청업체에서 수출업체로 발전했을 정도로 알찬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노조는 1월 16일 결성되었다. 그런데 3월초 회사가 '경영상'과 '비노조원들이 노조를 싫어한다'는 구실을 세워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한 공장에 비노조원만을 재고용 하려는데 항의하여 11일부터 '공장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12일에는 재품을 싣고 나가려는 차밀에 누워있던 노조원 3명이 구사대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오늘 아침 지하실에서 발견했다는 각목- 아마도 구사대들이 휘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을 구경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봉제계」라는 잡지에 실린 울산무역 관련 기사를 보여준다. '어찌 하오리까?'란 제목으로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싸움으로 존폐위기에 몰린 울산무역의 사정을 위로하는 글이다. 편집후기에는 "기업주가 아무리 대우를 잘해도 근로자는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데 양보하는 미덕이 아쉽다"는 충고까지 곁들여 있었다.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기업주의 구시대적 육물들이 한데 모여있는 것만 같았다.

사무실 내에는 노조가 인수한 관리자 등의 회의배도 있었다. 공장이전 후에 임금과 근로조건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좀더 노동자를 철저히 감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꼭 드러나 있어 경영난 때문에 공장을 이전한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인가를 알 수 있는 배도였다.

민주회 사무실에서의 약속시간 때문에 우리는 오래 지체할 수 없었다. 울산무역 노조원들, 수비대들과 작별하고 내려오면서 우리는 활력에 찬 그들의 투쟁에 박수를 보냈다.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수기

나와 노조원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맞을지 모르지만
폭력없는 공장생활,
노조활동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현장
동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곧 알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우린 분노해야 할 상대가 누군지 안다

오미림 (풍정산업 노조위원장)

오늘도 회사 구사대로부터 못매를 맞아 교선부장은 어깨부상과 무릎으로 2주 진단을 받고왔다. 영화는 옆에서 말리다가 발길에 차여 넘어졌다며 피영킨 퍼린 명을 보여준다. '몸이 췌으니 치마를 입고 싶다'는 영화의 바램은 아직 멀었나 보다.

작년 11월, 3인 가족의 가장임금이 14만원이던 시절, 계속되는 잔업 철야로 밤이 뚝뚝 붓고 관절염이 생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극심한 생리불순에도 생리휴가가 걸근으로 처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대로 받는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노조를 만들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1백30일을 우리 조합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오늘은 회사에서 어떻게 당할까 생각하면 어떨 땐 겁이 나요"

"2월 29일 박주용 주임에게 욕을 먹고 뺨을 맞고나서는 이렇게 맞으면서도 조합을 지켜야 하나 싶어 내 자신이 비참해지고 실용이 복받쳐 올랐어요"

노조 일을 하기 전에는 25만원씩 월급을 받았었지만, 이제 잔업·철야 안시키고 조장수당을 안줘서 9만원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교선부장은 방새 5만원을 뵈 후 심각한 생활대책과 계속되는 구타로 머리가 멍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들의 굶은 손가락과 들쭉한 얼굴에서 나를 보고, 그들 또한 나에게서 그들을 발견하고 있음을 안다.

내가 풍정에 들어온 것은 86년 11월이었다. 노동조합일을 하던 남편이 해고를 당한 후 시부모와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 집안의 생계를 내가 맡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공장일은 31세의 나에게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81년 남편과 결혼하기 전 5년동안 공장일을 했었기 때문이다.

1남4녀의 세째딸로 태어난 나의 집은 부평시장 뒷편의 판자촌이었다. 수도 사업을 하다 망하신 아버지가 중학교때 집을 나가신 후 우리 6식구는 어머니의 야채장사로 살았다. 지금도 어려서 딸가 두 수제비로 끼니를 때우고, 공납금 때문에 담임에게 야단맞고, 인천여상 졸업 후 첫 월급으로 산 쌀로 밥해먹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상고졸업 후 경리보다 돈을 더 벌 것 같아서 부평에 있는 대양산업에 생산직으로 취직을 했다. 이 회사는 스웨터를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서 처음 노동조합에 대해 알게 되었다. 79년에 나는 평균학력이 국졸인 다른 동료들보다 많이 배웠다는 이유로 위원장이 되었다. 1백명중에 80여명이 노조원이었던 이 회사에서 받아들인 조합원과의 끈끈한 관계와 근로조건 개선싸움, 임금인상싸움 등의 경험은 지금 몸담고 있는 풍정산업의 형편없는 노동조건을 무관심하게 지나칠 수 없게 했다.

작년 11월 11일 백밀러 제조업체인 풍정산업에서도 노조가 결성되었다. 가슴 뿌듯한 기대로 시작한 나, 그리고 우리의 노조활동은 지금까지 매일매일의 폭력으로 얼룩지고 있다. 처음 50여명이던 노조원들이 친척이나 취업알선자들을 동원한 회사측의 사표강요와 폭행에 차츰 회사를 떠나, 7명의 노조원만이 남아있

는 지금의 상황이 이 지독한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후암동 천주교회에 다니며 천주교 실업위원회 고문이기도 한 김상연 사장은 "가톨릭신자의 양심으로 해고시키지는 않겠다"면서도 "공장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 우리 스스로 나갈 때까지 때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풍정노동자중 "노조파괴에 가장 앞장선 사람에게 수퍼마킷을 차려주겠다"는 회사측의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회사는 같은 노동자를 이간시켜 구사대를 조직하고 교활하게 이익을 생긴다.

나는 구사대에게 갖은 폭언과 구타를 당해왔다. 얼굴에 참을 뺨고 입술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목을 조르고 밟고 따귀를 때리는 등등. 이중에도 12월 17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농성중이던 조합원들을 구사대가 3층에서 밖으로 끌어내리면서 발로 차고 짓밟았고 정문밖 얼음바닥에 내동댕이쳤다. 몸을 못 움직이고 누워있는 조합원들 얼굴위로 회사에 못들어오게 하려고 불꽃을 튀기며 대문을 용접하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가난을 이용해 노동자를 비인간화시키는 사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한 구사대원의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다. 단칸 셋방에서 부인, 아기, 여동생과 같이 사는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인 그에게서, 또 손님이 왔다고 예의를 차리는 그에게서, 회사안에서 무지비하게 조합원을 때리던 모습은 없었다. 뒷머리를 금지이며 "제가 감정이 있어서 때린 건 절대 아닙니다"며 사과하는 그들과 우리의 심정은 마찬가지로였다.

나는 대답했다. "매맞은 우리도 아무런 감정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하고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 안다. 못겉다고 자진 퇴사하도록 추운 날일수록 밖에서 청소나 힘든 일만 몰라서 시키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돌아서서는 지키지 않는 기업주, 폭력을 직접 보고 합의서 불이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노동부, 폭력을 법에 호소해도 벌금만 물려 또 때리게 하는 공권력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다.

나와 노조원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맞을지 모르지만 폭력없는 공장생활, 노조활동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만 당한다고 생각하는 현장 동료들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곧 알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으므로! ■

여성민우상담실

임금인상시기를 맞아
여성민우상담실에는
임금인상교섭 방법과
그 문제점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개발적인 설명보다는 한
훌륭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경원기계의 임금교섭과정을
실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원기계 노동자와 그 가족 이야기

"못난 병신처럼 죽어지내야지 주체에
입달렸다고 나불대다가는 마누라 새끼
모두 다 쌍둥이가기 십상이다"

지난 87년 4월 노동조합 민주화 움직
임이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한 채 회사
측의 강경책에 밀려 무산해버리자 많은
경원노동자들이 거 브란듯이 내뿜은 말
이었습니 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후 경원기계 노
동조합은 올봄 임금교섭에서 전 종업원
4만 5천 1백 20원 정액인상 (남성초임
8천 3백원·여성초임 7천 5백원), 주
44시간 근무(토요일 격주 오전근무), 학
자금지급, 중식비인상 등 실로 모범적인
결과를 따냈습니 다.

"남편들만 공장에 있게 할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하려면, 87년
8월에 있었던 28일간의 길고 피마르는
경원의 투쟁을 빠뜨리고서는 이야기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87년 6월 민중항쟁이후 울산 현대엔
진에서 현대재벌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
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자주화·민주화 열
기가 현대계열 전사를 뒤흔들고 부산·창
원·마산·광주 등의 대기업으로 번지고
있던 7월 27일, 경원기계에 대한 언론
의 왜곡·편파 보도(지면상 내용 생략)에
의 항의와 노동자로서의 자각은 28일간의
힘찬 투쟁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경원의 노동자들은 6월 이전의 자기
모습을 거부했습니다. 10여일 술렁대던
공장내 분위기는 '어용노조피진'의 함성
으로 터져 나왔습니 다. 작업장 밖으로
쏟아져 나온 조합원들은 그들보다 조금
먼저 노조의 민주화를 외쳐 해고되었던
동료들과 벽한 재회를 했습니다. 총회를
통해 민주노조위원장을 선출했지만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새 노조는 파업지도부로서 성명을 발
표하고 15개항의 요구조건을 제시, 파업
농성에 들어갔습니 다.

농성자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기혼
으로서 공장주위에 용기종기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어난 일은
부인들 사이에 퍼지고, 남편과 자식들이
왜 농성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부인들
은 거의 없었습니다. 겁이 날 뿐이었지
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과
자식을 찾아 가족들은 공장앞으로 모여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일터를 둘러
보면서 가족들은 노동자 가족으로서의
자신을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지요.

가족들은 "남편들만 공장에 있으면 밤
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라
면서 공장을 지켰습니 다. 이렇게 해서
'가족실천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은
독자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했습니다.

- 더 많은 가족의 참여를 호소한다.
- 남편을 격려한다.
- 회사가 밥을 안해주면 우리가 한다.
- 동네별로 연락망을 만든다.

공장을 지키던 가족들은 회장을 만나
질문을 짓겠다고 아기를 들쳐업고 본사
로 찾아갔지만 본사직원들의 거친 손길
속에 넘어지고 짓밟혀 서울역 광장으로
밀려났습니 다. 이에 굴하지 않고 비를
맞으며 서울역 고가도로 밑에 벌임 누워
구호를 외쳤습니 다. 달려온 것은 남대문
경찰서 담장자 2대, 그대로 실려 부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 다.

이 소식은 경원노동자들의 피를 끓게
했습니다. 다시 본사에서 조합원과 본
사직원간에 난투극이 벌어졌으며 노조위
원장 등 상당수 조합원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회사는 굴복했습니다. 농성 11
일만에 현상이 시작되었고, 5일간의 철
야협상 끝에 9월 6일 11시 타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간담회"란 말에 회사가 항복

올 임금인상시기를 맞으면서 노조집행
부는 작년의 이 경험을 되살렸습니다.
임금인상 요구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자료수집·시장조사는 물론 조
합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서 생활을 정확하게 파악, 임금인상의 근
거를 마련한 것이지요.

설문내용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이렇
습니 다.

● 남편이 전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정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93.3
%)

● 1박이상 가족여행을 1년에 몇번
갑니까? (한번도 없다 83.8%)

● 상여금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생활비 49.4%, 빚갚는 데 26.6%)

● 가정불화가 일어날 경우 그 원인
은? (돈 73%)

또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위한 교육교재를 제작·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임금인상 요구안
을 각 부서별 공정회를 통해 확정, 대의
원대회의 결의를 바탕으로 임금교섭에
들어갔으며 그 진행과정은 계시판을 통
해 전조합원에게 속보로 전달되었습니다.
임금교섭은 난항을 계속했습니다.

전 조합원은 '리본달기'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어 상집간부·대의원
교섭위원들이 중식을 거부했으며 다음날
엔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러자 빅
보에는 '전조합원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요?'라는 글이 나붙고 1백50여 조합
원이 중식거부·철야농성에 동조하기에
이르렀습니 다.

생생한 긴장속에 지도부는 마지막 단
안을 내렸다. 그것은 '다음날 회사에서
전조합원과 가족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담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
무나 잘 알고 있는 회사측은 그날 새벽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연대속에 경원은
승리한 것입니다. ■



이 상태로 나간다면 소비자 물가상승이 연말에는 13.2%로 상승된다고 신문방송에서도 걱정한다. 하나 실제 시장바구니가 느끼는 물가상승은 벌써 1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걱정 정도가 아니라 비상사태다.

최영희 (본지 부회장)

“시장 갔다 오세요? 뭐즘 많이 샀어요?”

“아이구! 말 말아요. ‘한숨’만 한집 사오는 거예요. 정말 물가 때문에 큰일이예요.”

시장입구에서 만난 주부들의 걱정스런 대화였다. 신문은 연일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을 대서특필하고 있지만 잠실값을 내는 셀러리맨들은 이제 거스름돈을 못 받게 되었다. 1천5백원 하던 실링탕이 매직으로 새로 써붙인 가격표에 의해 어찌까지만 해도 천원짜리 두장 내면 거슬러받던 동전 다섯날을 오늘부터는 똑딱 따먹고 시치미 댔다.

정부도 물가의 심각성을 알아채고 종합대책이다. 특별소비세 인하, 유가인하 하마 뛰어내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물가는 이런 정부정책을 비웃기라도하듯 나날이 뛰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물가는 하루 이틀만에 잡고 잡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또 정부도 그

런 것이 아닌 것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삼리요법이라도 써야할 위기 상황이므로 응급처방술을 자주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밑물 썰물이 보이는듯 안보이는듯 늘어나고 또 줄어들지만 쉽게 막아지지도 않는 것처럼, 물가는 우리 사회의 전체 경제상황, 경제정책이 복합된 경제구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채도 망간 강아지 잡듯이 쉽게 잡아지지는 않는다. 갑자기 해일과 같은 이상변화가 없는 한.

이 상태로 나간다면 소비자 물가상승이 연말에는 13.2%로 상승된다고 신문방송에서도 걱정한다. 하나 실제 시장바구니가 느끼는 물가상승은 벌써 1년치를 넘어선 지 오래다. 걱정 정도가 아니라 비상사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함정

그렇다면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물가

물가걱정 제대로 합시다

상승률과 우리가 실생활속에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왜 이리도 다른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선 소비자물가지수 조사를 위한 조사품목에는 일반 서민들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온갖 호화사치품도 들어있다. 얼마전 물가인하를 위해 특별소비세를 낮춘 적이 있었다. 그랜저자가용, 골프채, 귀금속의 세금이 낮아져 얼마 얼마면 살 수 있다고 신전해했지만 그것이 우리 서민들의 물가안정과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래서 감소되는 세금이 2천억이라는데, 그렇다면 가꾸로 그런 사치품의 세금을 많이 올려 서민들의 근로소득세를 걷지 않는 편이 차라리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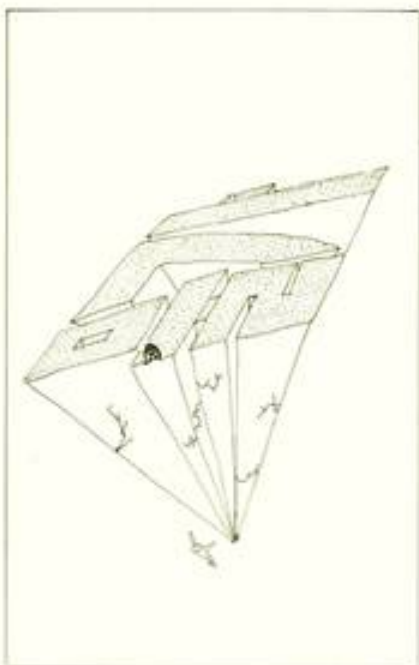
또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허술한 척도는 제품의 양을 줄이거나 혹은 신개발품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변칙인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1백g에 3백원 하던 과자가 어느날 싼뜻한 포장으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 80g으로 줄어든다. 이는 20%의 물가가 상승한 셈이 되지만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라는 화장품이 A'로 이름이 바뀌고 케이스가 달라지면서 가격이 올랐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번째로 소비자 물가지수는 사회적 소비양태가 변화하면서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생계비 지출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에는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탁위에 모셔졌지만 이젠 네모반듯한 케이스속의 티슈가 식탁에 올라와 있게 되면서 생겨나는 상승분이 감안되지 않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5일자 중앙일보를 보면 ‘생활물가’ 경중... 장보기 겁난다’라는 제하에 한달새 10~20%씩 물가가 뛰고 올들어 채소 과일들은 60~70%씩 뛰었다고 나와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채소 과일의 상승은 눈감아 준다해도 대중음식값, 서비스요금, 공산품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으니, 소비자 물가지수 어찌구 하면서 통계수치 나열해봤자 신뢰만 잃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진짜 물가인상의 주범은?

우리는 작년 7·8월 수십년을 ‘봉제’만 받아오던 노동자들이 사무직·전문직·생산직을 가리지 않고 모두 생존권을 부르짖었을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모든 언론·학자·정부당국자들은 한결같이 임금에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입을 모았었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



우리는 '물가=임금'으로 연결짓게 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제조업의 원가분석중 임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그치고 있어 임금이 10% 올라도 물가에는 0.85%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금'으로 연결짓게 되어 이들의 세뇌 정책은 특별히 효과를 보고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87년도 한국은행 통계에는 제조업의 원가분석중 임금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5%에 그치고 있어 임금이 10% 올라도 물가에는 0.85%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다. 원래 물가는 돈의 양과 물건(상품)의 양을 비교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언제부턴지 '물가'하면 '임금'을 끌어붙여 임금인상 때문에 물가인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물가인상의 주범을 찾아보자.

첫째로는 통화증발이다. 6·25때 전쟁으로 물자는 귀하고 정부는 우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냈다. 결과는 고무신 한켠에 사려면 리어카로 돈을 싣고 가야 했고 도배지를 사서 방을 도배하려면 차라리 돈으로 도배하는 것이 낫다는, 약간의 과장되지만 그러나 사실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한 나라에 상품이라고는 빵이 10개뿐이고 전국민이 가진 소득이 1백원이라면 빵 하나는 10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1백원을 조폐공사에서 더 찍어냈다고 하자. 빵값은 자연히 20원으로 오를 것이다.

2월중 총통화증가율이 19.2%로 연

말 역대 목표액인 18%를 넘어섰다. 지난해의 선거공약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더욱 통화관리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올해 물가인상의 주범은 지난해 정부가 통화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거공약남발로 뿌려댄 선거자금과 각종 정책자금 때문에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그런데 또다시 목전에 총선을 두고 있으니 물가잡기는 갈수록 태산인 셈이다.

두번째로는 해외원자재 때문이다. 우리는 두번에 걸친 오일쇼크를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해외의존도가 높아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해외원자재 값이 오르면 전체 경제가 흔들거릴 지경이다. 특히 요즘은 일본 연화의 상승으로 기계나 원료를 일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물가상승의 큰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세번째는 독과점가격이다. 우리나라는 공산품의 88%를 독과점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정부지원을 기반으로 자동차·시멘트·정유에서 설탕·조미료·아이스크림까지 독과점을 이루어 몇몇 기업주가 담합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마구 외국상품을 도입하여 가격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원가가 떨어져도 소비용품의 가격이 떨어지진커녕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많다.

네번째는 출혈수출이다. 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에 대한 담핑판정이 심심치 않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린다. 이처럼 외국에 출혈수출하고 그 차액을 국내에서 비싸게 팔아 매꾸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부기도 물가상승의 주범이다. 요즘을 집없는 사람들은 낯이 나날 수밖에 없다. 자고 나면 또 올라있는 집값과 전세·월세값이 이들을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를 통한 각종 개발공약남발로 부기심리를 자극하여 부동산부기는 더욱 가열된 것이라 한다.

무주택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람 집은 계속 커져 위화감만 깊어져서 이를 걱정하는 틈에 어느새 집값 땅값이 뛰어 올라 '내집마련꿈'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월수입 20만원의 노동자가 50만원에 5만원짜리 월세를 살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주인이 1백만원에 6만원을 요구한다면 어쩔 것인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물가인상의 주범은 방만한 재정운영과 대기업위주의 재정금융정책일지. 그리고 이를 위한 통화증발과 공채발행, 독과점업체에 의한 인위적인 가격인상, 공공요금의 인상, 대기업의 유봉구조지배를 통한 폭리, 부동

생활칼럼

산 부기,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해외의존적 구조, 바로 이런것들이다.

행한 장비구니를 보며

3, 4월은 앞으로 1년간의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윤에 비해 노동자들에 치른 대가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70년대조차도 부가가치를 노동자와 사용자 4:5 정도로 나눠가진 데 반해 해가 거듭될 오늘날 1:4 정도로 노동자들의 몫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의 상대적 빈곤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동생산성은 1.9배가 성장했지만 실질임금은 1.4배의 성장에 그쳐 소득분배의 악화를 증명해 준다. 게다가 실속임금이 생산성과 물가를 따라잡는 비율로 인상된다해도 이것이 결코 근로조건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성향상을 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기보다는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짜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액의 0.1%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점대비는 무려 이의 4배이고 새마을성금·각종 기금 등의 준조세는 31배나 된다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자, 즉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모든 노동자의 수는 1천만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임금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은 가족까지 포함해서 2천5백만에 달한다. 전 인구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숫자이다. 이들의 1년간의 생계비 수준이 3, 4월에 결정나는 것이다. 물가는 뛰어 오르는데도 경제인총연합회는 임금인상폭을 6~8%로 묶으려 하고 있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더 오른다는 방령이 여기에 따라 붙어 이를 부추긴다.

그러나,

임금은 물가인상의 원인이 아니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나 미미하므로— 거꾸로 물가는 임금인상의 주원인이다. 게다가 생필품의 가격인상은 당장 배고프고 추운 생활로 연결된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생산직·사무직·전문직·판매직·서비스직 노동자이며 또 그 가족들이다. 행한 장비구니를 보며 한숨 쉬고 팔자맛으로 돌리기 전에 물가인상의 원인을 확실히 알아보자.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갈피못잡는 물가의 고삐를 어디에서부터 틀어 쥘어야 할지 한번 크게 머리를 짜내볼 일이다. ■

이 낯선 교실에서 배울 바

이 책의 이야기는 대학 재학중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한 스나가라는 노동자(이 책의 저자임)가 우연한 기회에 동료노동자로부터 자기 아이의 가정교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그 공장은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노동조합 분열공작과 부당해고에 반대하는 장기파업에 들어선 때였는데, 갑자기 몰아닥친 심한 경제적 궁핍, 그리고 비조합원의 아이들이 보내는 따가운 눈초리와 배척을 견디다 못한 동료노동자의 아이가 그만 소문난 불량배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적당히 학비만 모아지면 공장생활을 때려치울 생각이었던 스나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급의 70% 정도는 파업기금에서 제공되는 데다가 서명작업이나 유인물배포 같은 골치 아픈 조합활동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다는 이기심이 앞서 가정교사를 수락하게 된다.

쫓고 쫓기는 그 불량배와의 눈치싸움, 아무리 달래고 유혹해봐도 도무지 열려



스나가라
'가난한 이들의 교실'
동녘출판사
값 3천원

최운정 (서울 도봉구 미아동)

지지 않는 아이의 굳은 마음, 그러면서도 최미하게나마 느껴지는 아이의 고충과 어두운 그림자- 그 어떤 조합활동보다도 더 힘든 아이와의 싸움을 겪으면서 어느덧 스나가는 자신의 시야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자신만이 전 부였던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아

이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열의를 갖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결국 문제는 그 아이만의 특수한 것이 아니라 비민주적 교육문제 및 노동문제 등 사회전반의 문제들이 바로 아이를 비정상적으로 성장케 만들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다.

이후 스나가는 더이상 그 아이 하나만의 가정교사가 아니게 되었다. 진실하고 진지한 불만의 교육공간은 확대되어 많은 아이들이 이들을 찾게 되었으며 색안경을 끼고 보던 다른 부모들도 적극 이 교육에 협조하여 마침내는 '교실'이 탄생하기에 이르른다.

제도권 교육이 가르치지 못하는 민주주의를 아이들은 이 교실에서 배웠고, 어른들이 이루지 못한 통일을 아이들은 이 교실에서 이루어 냈으며, 노동자가 직접 자신들의 2세를 교육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안에서 아이들은 부모들에 대한 자부심과 참다운 노동자 의식을 갖는 건 강한 노동자로서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었다.

〈나는 전에 노동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해 항상 더러운 차림을 하고 저속한 이야기만 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 그러던 중에 나는 이 교실에 다니게 되었고 그후 점차적으로 노동자라는 사람들을 차츰 이해할 수 있었다. ... 나는 지금 노동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다...〉 (교실 문집에서, 5학년 여학생) ■

날 말맞추기



(가로열쇠)

① 돈은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은 더욱 축오라 하니..... ② 고려때문에 ○○를 타진다. ③ 1910년 ~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가 된 적이 있었지. ④ 어린이의 손발이 수축하여 굳어지는 증세. ⑤ 대기오염으로 인해 산성이 많이 섞인 비.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⑥ 사람이 모여사는 곳. 큰락이

라고도 하지요. ⑦ 회사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다니..... ⑧ 호적이 있는 곳. ⑨ 작년 대통령선거때는 ○○단일이 될시 필요할 때였지. ⑩ 재물을 공금·교부하는 일. 새마을부에서 성금을 헌납한 사람은 빈대○○가 있었지..... ⑪ 한 부분. ⑫ 최후탄 파편을 맞고 마산포에 시체로 뜬 김주열군 사건은 4·19의 ○○이었지. ⑬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외교관계를 지향하고 동일한 관계를 수립·유지해 나가는 것. ⑭ 그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전에 없었음을 일컫는 말. ○○의 대성황이라는 말도 있음. ⑮ 국회 입안을 통한 선거로 4월 26일 실시되자요. ⑯ 사람의 얼굴을 하얗게 하거나 마음을 정복과 다름이 없음. 자기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풍악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세로열쇠)

① 토지 및 건물·수목 따위의 재산. 말마전 이것에 투기한 사람의 평판이 발표되었지. ② 반한 값. 근래 이것이 많이 올라 시장보는 마음이 무겁지. ③ 가난한 사람. ④ 발인때까지 관을 두는 곳으로 문장력을 맞이하는 곳. ⑤ 전경원. 왕국으로 불리고 있죠. ⑥ 비를 잊지 않게 하는 여러가지 기구. ⑦ 확실히 단정할 수 없는 말앞에 거의 대개의 뜻으로 쓰이는 말. ⑧ 폭력한대로 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형통·와육의 근거. ⑨ 형사소송법상 한번 확정 판결된 사건은 다시 심리하지 않

는다는 원칙. ⑩ 전호대교에 바스가 들어갔을 때 ○○지가 급하게 달려왔었지. ⑪ 하나의 심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종교. ⑫ 발안간 뛰어오르다는 뜻으로 대통령 선거후 종군가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⑬ 마을에서 마을으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죠. ⑭ 패강도를 잡는다며 경찰이 휴대하고 다니지요. ⑮ 설마 산 일에 ○○치겠느냐. ⑯ E-1가 이것의 대역사. ⑰ 빈손이란 뜻. ○○러 ○○거.

(지난호 정답)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4월 25일까지 접수된 정답서를 수렴. 그중 다섯분에게 6개월치 신문료 우송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자는 대구 직할시 중구 명준동 1015-31 김문아씨입니다.

토	마	토	칠	전	광	기
정	대	자	보	와		
비	명	본	용	고	집	
결	사	대	진	달	래	
			인	연	성	
	용	선	고	고	아	
복	두	장	군	삼	국	지
기	미	년	개	구	장	이

제4기 직장여성교실이 5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직장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어온 '직장여성교실'이 4월 10일자로 3기 교육을 마치고 5월 14일부터 제4기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첫째날: 5월 14일(토) 3시

여자 팔자 두레박 팔자라는데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삶을 생각해봅시다.

● 강의 '주체적인 삶과 여성의 직업의식'

- 김정애(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원)-

○둘째날: 5월 20일(금) 7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해방이후의 한국사회를 머리로, 피부로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 강의 '한국사회의 이해'

- 장명국(노동문제 전문가) -

○셋째날: 5월 28일(토) 3시

여성은 남성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 오늘날의 여성의 지위를 알아보고 나아가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또한 진지하게 이야기해봅시다.

● 강의 '현대산업사회에서의 여성문제'

- 지은희(덕성여대 강사) -

○넷째날: 6월 3일(금) 7시

우리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직장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자주적인 직장여성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 강의 '자주적 직장여성성과 여성운동'

- 이옥경(이화여대 강사) -

○다섯째날: 6월 11일(토) 3시

법이란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직장여성성과 관련된 법을 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 강의 '여성법'

- 한명숙(이화여대 강사) -

○여섯째날: 6월 18일(토) 4시~6월 19일(일)

선배언니와 대화도 나누고, 우리들의 고민도 함께 풀어보고, 신명나게 어울어져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된 힘으로 생소한 평생일터를 가꾸기 위한 방법도 모색해 봅시다.

● 평생직장을 위한 사례발표

● 강의 '보완된 직장생활과 조직운양의 실제'

- 최영희(한국여성민우회 부회장) -

● 공동체놀이

● 곳: 본회 교육실

● 수강료: 2만원

● 접수마감: 5월 10일

● 문의: 313-1060

5월 7일

남녀고용평등법공청회가 민우회·여사연 공동주최로

우리 여성들은 그동안 취업상 여성편익을 보장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애타게 주장해 왔습니다. 바로 그 남녀고용평등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상의 남녀차별철폐와 여성의 모성기능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은 여성노동의 불리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공개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여 그 법의 의미와 한계점, 극복방안 등을 한데 짚어보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성·남성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한국여성민우회·여성한국사회연구회 공동주최

●내용: ①주제발표: 남녀고용평등법의 의미와 한계

②사례발표

③논평

④종합토론

●때: 5월 7일(토) 오후 3시 30분

●곳: 종로성당 (세운상가 맞은편)

●남녀고용평등법 관계 자료도 나옴 예정입니다.

●문의: 313-1060

4월 8일 그린힐 참사를 계기로 한 '여성노동자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긴급공청회'

3월 25일 일어난 그린힐섬유 화재는

22명이나 되는 젊은 여성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결코 '사건'이라 할 수 없는 '인재(人災)'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참혹한 근로조건, 인명경시의 풍토가 이들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에 민우회는 그린힐 참사를 계기로 하여 '여성노동자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긴급공청회'를 준비했습니다. 3월 9일부터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본회로서는 이 사건 역시 여성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간접적' 직장폭력이라는 점을 생각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주거환경문제, 영세하청사업장문제, 법적·제도적문제 등과 그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 노동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가 채택될 예정입니다.

●때: 4월 8일(금) 오후 2시

●곳: 종로성당

●문의: 313-1060

폭력추방운동 중간보고대회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우회에서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임금상투쟁과 또 그만둠이나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직장내 구사대폭력사태를 목격하면서, 이 실상을 빨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중간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중간보고대회는 그간 민우회의 활동을 보고하고 직장내 폭력의 재유행이 분석, 제시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때: 4월 20일(수) 오후 7시

●곳: 종로성당

●문의: 313-1060

미알 공연 '꽃다운 이내청춘'

한국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문화부가 모여 만든 여성극단 '미알'의 첫공연 '꽃다운 이내청춘'이 4월 17·18일 양일간 예술극장 머리내에서 열립니다. 제1회 민족극 한마당의 참가작인 이 작품은 기생관광 매춘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4월 17일(일) 2시, 4시30분, 7시30분

4월 18일(월) 4시30분, 7시30분

●입장료: 일반 3천원, 학생 2천원(미리 발행되는 특별우대권은 일반 2천5백원, 대학생 1천5백원, 중고생·근로청소년 1천원)

●문의: 313-1060, 764-4240

5월 5일 '푸른 어린이 큰잔치'가 가족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르른 계절 오월.
우리의 어린이들이 맘껏 자라는 오월입니다.

상업주의문화, 향락주의 문화가 어린이 세계에까지 침투하는 오늘의 현실을 염려하며 저희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푸른 어린이 큰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건강한 어린이문화,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은 우리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말이들 오셔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잔치내용: 재미있는 인형극과 다양한

놀이

-인형극: '떡배와 뽕배'

-사물놀이: 장구·북·꽁꽁리·징이 흥겹게 어우러지는 한마당

-놀이: 늘 수동적으로 TV만 보며 사는 일상생활을 떠나 어린이와 가족들이 모두 스스로 움직이며 참여하는 놀이입니다. 호연지기를 기르며 창의성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장소: 고대 체육생활관

●일시: 1988년 5월 5일(목)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입니다.

●참가비: 1인당 3천원

*프로그램이외에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끼리 식사할 수 있는 야외공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지참을 안하신 분들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실비 제공).

*자그마한 상품과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313-1060

「함께 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본 신문의 발행일은 매달 1일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장 이야기> <이런 모임> <독자독후감> <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 <등의 난은 독자의 참여로 채워지는 난입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본 편집실로 사건을 알려 취재를 맡겨주셔도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회사건에 대한 견해 등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원고 등을 우송하실 분은 120-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사를 바로잡습니다

88년 2월호(통권 제6호) 10, 11면 놓여온 의료보험 기사에 실린 2개의 도표자료는 가톨릭여성농민회 제공자료였습니다. 편집과정에서 이 점이 빠졌기에 바로잡습니다.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보시려면

①본 신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이나 전국 몇몇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가격은 1부에 5백원).

②본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본회의 「신문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연회비 7천원). 아래의 온라인이나 지로를 통해 송금하시고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말씀해 주시면 매월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온라인 송금하실 곳

상업은행 109-08-195935 흥영주
제일은행 277-20-195962 흥영주

●지로창구 이용

가까운 은행 어디든지(한국은행·산업은행 제외) 지로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본회 번호: 7519497). 이용할 분은 구독신청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③자세한 문의는 313-1060

아리랑택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안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 가운데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여성문제: 연애, 결혼, 성문제, 그외 성차별적 문제

②노동문제: 임금 및 각종 수당, 해고,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교육에 관한 문제

③교육문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자녀양육,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상담시간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처해 있는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서신상담과 전화상담(313-1060)도 합니다.